

「IFSEC 2009」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안내

1. IFSEC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한글) 영국 버밍햄 보안기기 전시회
 (영문) International Fire & Security Exhibition
 (약자) IFSEC 2009

나. 개최기간 : 2009년 5월 11일 ~ 14일

다. 개최연혁 및 주기 : 1999부터 2009년 11회째 / 매년

라. 개최장소 : 영국 버밍햄 NEC(National Exhibition Centre)

마. 전시회 성격

- 미국의 ISC WEST, 독일의 Security Essenrhk 함께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보안장비 및 솔루션 전문 전시회로 평가
- 유럽 및 주변국을 비롯 중동, 아시아 등 세계 주요 바이어와 생산업체가 대부분 참가하는 거래 상담 위주의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 Safety & Health Expo, The Facilities Show, Int'l Fire Expo 등 관련 전시회 (3개) 동시 개최

바. 전시규모(2008년 기준)

- 전시면적 : 35,000 sq.m.
- 참가업체 : 55개국 810여개사 (국내 343/해외 468)
 - 삼성전자, Siemens, Bosch, HID, Norbain SD, GE, Sony, Panasonic, 삼성테크윈, LG전자 등 세계유수 글로벌기업과 대만, 중국 등 주요경쟁국 보안장비업체 대거 참가
- 참관객 : 30,753명

사. 전시품목

- Access Control, Computer Security, DVR, CCTV, Alarm Integrated Systems, 홍체인식, 지문인식 등 Bio Technologies, Camera, Lens, Security Solutions 등 디지털보안장비 및 솔루션 전반

아. 주최자 : CMP Information Ltd.

※ 공식 홈페이지 : www.ifsec.co.uk

2. 한국공동관 운영 계획

가. 참가연혁 : 1999년 최초참가, 올해로 11회째 참가

나. 주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다. 후원 : 중소기업청, 경기도

라. 한국관 규모(예정)

- 한국관 면적 : 360 sq.m.(총 30부스내)
 - 기본부스면적 12m²/부스당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 있음)
- 한국관 위치 : Hall 5 内

3. 참가안내

가. 참가신청

- 신청면적 : 1부스(12m²)의 배수 (참가신청 면적은 2부스까지로 제한)
※ 기본부스 면적은 한국관 참가업체 수 및 부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신청금 입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각 1부
☞ 참가신청서 및 안내문은 www.gokea.org 해외전시참가메뉴 또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참가신청금 입금

□ 참가업체 선정

- 최종 참가업체는 본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추후공지 예정
- 참가신청금을 납부한 업체라도 소정의 선정 심사 절차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신청금은 환불 조치

나. 참가비

- 참가신청금 : 참가신청서 제출 시 1 부스 (12sq.m.)당 500만원 납부
 - ☞ 참가비 총액은 참가업체 선정 확정 후 별도 통보예정
 - ☞ 참가비는 총 2차에 걸쳐서 납부(1차 : 전시회 참가 신청시, 2차 : 참가업체 선정 후 잔금납부)
 - ※ 탈락 시 빠른 시일 내에 참가신청금 환불 조치
- 송금계좌 : 국민은행 598601-04-001424
(예금주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회사명으로 입금 요망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신청금을 납부하셔야 참가신청이 유효
- 신청기한 : 2009년 1월 30일(단, 선착순 접수 마감)

☞ 부스 사정 등으로 인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참가비 포함내역

- 부스 임차료
- 부스 장치비(기본전력 포함)
- 진열대, 상담테이블 및 의자, 안내 데스크 등 기본비품
- 한국관 참가업체 디렉토리 제작
- 한국관 운영비(사무기기 임대, 도우미 고용 등)
- ※ 기본비품 외의 물품, 참가업체 여행경비, 인터넷 회선료 등은 별도임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마케팅지원센터 변현주 대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9 (121-835)
전화> (02) 6388-6062 팩스> (02) 6388-6069
이메일> julie@gokorea.org

다. 한국관내 경기도관 참가업체 지원안내 (추후 별도 공지예정)

□ 신청자격 : 본회에 참가신청서 및 총 참가비를 납부한 업체 중 경기도 참가신청 대상업체

□ 선정방법 : 2009년 해외전시회 경기도 공동

관 선정 기준에 의함

□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해상운송료 일부지원

☞ 단, 지원요율은 참가업체 규모 및 전시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관련 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 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업체가 45개사 이상일 경우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
- 신청업체가 2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 시행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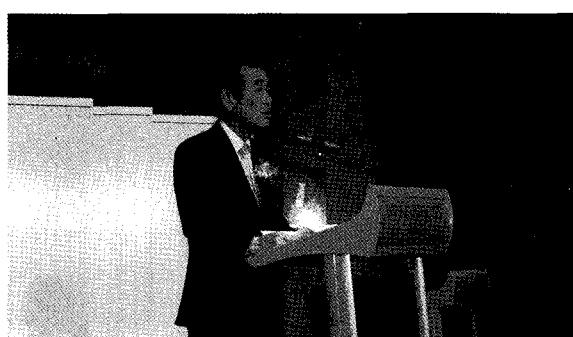
□ 참가신청(2009. 1월 초부터)

- 신청기한 : 공지예정
- 신청대상 : 경기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중소제조업체로
 - '07년 기준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가 포함되어야하며 임가공 실적은 제외
- 신청방법
 - <http://trade.gg.go.kr>를 통해 회원 가입
 - 수출지원시책의 사업명 선택
 - 사업참여신청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 경기도관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2009년도 IT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 IT산업의 '경제위기 극복 결의대회'를 겸한 「2009 IT산업인 신년 인사회」가 '09. 1. 15(목) 17:00~18:00,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이번 신년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김신배 SK C&C부회장,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의원, 허범도 의원, 이달곤 의원, 최문기 ETRI 원장 등 업계, 학계, 정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IT산업인 신년인사회」는 지식경제부 출범 이후 전자, 정보통신, SW업계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최초 행사로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산업협회, RFID/USN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정보산업연합회, 전자거래협회 등 9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날 IT산업인은 세계 경기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 ③ 일자리 유지·창출 ③ 투자확대와 IT융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고,
 - 미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SW 뉴딜」추진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2009 IT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요**
- 일시·장소 : '09. 1. 15(목) 17:00~18:00, JW메리어트 호텔 5층
 - 주관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서비스협회, RFID/USN협회, 전자거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정보산업연합회 (9개 단체)
 - 참석 : 전자, 정보통신, SW 등 IT산업인 400명



- *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김신배 SK C&C부회장,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김인 SDS 사장, 서승모 씨엔에스 테크날러지 사장 등 업계 CEO
- * 국회 김기현 의원, 허범도 의원, 이달곤 의원 등 정계·언론계 인사, 최문기 ETRI 원장 등 연구계 등

▣ 행사진행

시간	진행계획	비고
17:00~17:01 (1분)	개회선언	사회자
17:02~17:05 (3분)	내빈소개	이감열 KEA 부회장
17:06~17:09 (3분)	인사말씀	윤종용 KEA 회장
17:10~17:13 (3분)	축사	허범도 의원
17:14~17:17 (3분)	신년사	임채민 차관
17:18~17:21 (3분)	경제위기 극복 결의문	업계대표 2명
17:22~17:25 (3분)	케이크 절단	주요 인사
17:26~17:29 (3분)	간배 제의	김신배 회장
17:30~18:00	의견 교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T산업인 결의문

IT산업은 그 동안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우리경제의 중추 산업으로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

이에 IT산업인 모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앞장 서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IT산업인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진력한다.
2. 우리 IT산업인은 일자리를 나누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장선다
3. 우리 IT산업인은 지속적인 투자와 다른 산업과의 IT융합을 통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우리 IT산업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IT·SW 뉴딜」의 추진을 건의한다.

2009년 1월 15일
IT산업인을 대표하여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조현정
위니텍 대표이사 강은희